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교육관 7번 교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봉사자 기도 모임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11. 17	11. 24	12. 01
대표 기도	김영희 권사	이수현 집사	정용현 집사
성경 봉독	김영희 권사	이수현 집사	장준화 형제
헌금 위원	이수현 집사	유미영 집사	김효중 집사
안내 위원	박재기 집사	박재기 집사	김남희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렘26~44장)
2. 찬양집회 - 23일(토) 오후 2시, 음대 강의실 217호
3. 말씀 나눔 - 17일(주일) 친교실 정리 후 5번 교실에서 모입니다.
4. 선교사 선물 보내기 - 11월 24일(주일)에 특별헌금 시간 있습니다.
5. 나눔의 시간 - 유미영, 김효중 집사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심승희 형제(13일) 조정화 성도(14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새로 등록된 교우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김선택,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민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 25장 ..... 다같이
- \*성서교독 Wechsellesung ..... 교독문 70번 .....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 322장 ..... 다같이
- 기도 Gebet ..... 황희순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 계 4 : 1 - 4(신p403)..... 황희순 집사  
(Offenbarung 4:1-4)
- 설 교 Predigt ..... **주관자이신 하나님** .....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 323장 .....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314장(1, 2절)..... 김영희 권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 54장 .....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 친교실

## 모든 소유권이 주께 있으니

입대할 때 저는 주일예배를 꼭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보통 중대 고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축구 경기를 해야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도 공을 차고 있는데 예배당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김 병장님 저 교회에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다른 고참들은 ‘누가 네 마음대로 교회 가래’ 저는 속으로 아! 교회도 내 마음대로 못 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저 교회에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조용히 듣고만 있던 김 병장님이 “야,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주일에는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알고 보니 최 고참인 김 병장님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군중 사병이 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의정부로 나왔습니다. 그럴 때면 자장면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걸하는 이에게 자장면 값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그 때 순간적으로 변명거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돈을 쥐 봤자 저 사람은 술 사먹고 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돈을 쥐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분께 제 점심 값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길아 네가 저 사람에게 점심 값을 준 것은 너의 생명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팔린것입니다. 그분의 종이 된 것이죠. 내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마음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중언 / 김 길